

Marriage and Family Life In Response to Declining Fertility

- Case of Japanese Women -

Yoonseock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Korea / Graduate School of Law, Keio University, 2-15-45 Mita, Minato-ku, Tokyo, Japan

Abstract

The rate of aging in Japan is fast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come one of the highest aged societies, almost at the same level as Japan. This rapid aging of the labor force may require different labor policies for East Asian women.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getting married and parenting of young women in age between 20s and 30s of Japan, by analysing the data of family life, the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find the factor associated with declining a birthra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ternity leave and the level of sharing household chor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mployment of Japanese women. However, a children's allowance program has a little influence on the childbirth rate.

Key words: Japanese women, marriage, employment, low fertility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등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출산율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는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의·식·주의 부양부담은 감소했으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와 다양한 아동복지육구 등은 아동양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빈곤을 가져오고 있다(Lee & Choi, 2005: 162). 여성의 출산율저하는 최근의 만혼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만혼화는 여성이 결혼관과 결혼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직업경력 저하와 출산으로 인한 영향, 국가의 보육수당과도 관련이 깊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외국의 아동수당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ho & Hwang, 2006: 47). 여성의 취업 확대를 필요로 하는 국가,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나라의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그 중 특히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즉각적

⁺ Corresponding author: Yoonseock Lee, Tel. +82-53-580-5385, Fax. +82-53-580-5313, e-mail. yoonslee@paran.com

인 대응이 필요한 나라이자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면에서 우리와 유사하다¹⁾. 고령화의 패턴에 관해서도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인구 전체가 느린 속도로 고령화된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자 인구는 줄지 않음에도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빠르게 고령화한다는 면에서도 우리와 유사하다. 또한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이고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단지 일본 국내의 인구학적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① 고령화로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GDP 하락과 급속한 사회 보장 지출의 성장을 가져온 경제·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②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는 노인의 저축률 하락을 유도하게 되어 자본 축적(국내 저축)을 크게 감소시켜 일본이 순자본 수입국이 되면 전 세계적인 자본 부족으로 심각한 세계 금융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는 사실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육아 환경의 정비가 급선무이며 ②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 환경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또한 ③ 개호 담당자, 간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비율은 높고, 여성과 개호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상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육아·개호의 조화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남녀 공동 참가의 국제 순위는 105 위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2013))로 현저하게 낮고, 일본 또한 남녀 공동참가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와 유사한 취업 및 육아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여성의 결혼 및 결혼활동상황, 취업·직업상황, 육아·아동수당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HIGH INCOME		
Country	Overall score	Overall rank
Iceland	0.8731	1
Finland	0.8421	2
Norway	0.8417	3
Sweden	0.8129	4
Ireland	0.7823	6
New Zealand	0.7799	7
Denmark	0.7779	8
Switzerland	0.7736	9
Belgium	0.7684	11
Latvia	0.7610	12
Netherlands	0.7608	13
Germany	0.7583	14
United Kingdom	0.7440	18
Austria	0.7437	19
Canada	0.7425	20
Luxembourg	0.7410	21
United States	0.7392	23
Australia	0.7390	24

Figure 1. International rankings of the gender equality
Source :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 동아시아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

선진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 1990년대에는 거의 중위이었지만, 21세기 초두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또한,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령화율이 7%를 넘고 나서 그 배가 되는 14%에 달할 때까지의 소요연수를 비교하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비교적 짧은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인 것에 대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고, 그 24년 후인 1994년에는 14%에 달하고 있다²⁾. 일본의 고령화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을 상회하는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에 9.4%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35.1%에까지 달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³⁾.

1) Source: Goldman Sachs Equity Research, Fortnightly Thoughts April 25, 2013 Issue 53 Goldman Sachs

2) 일본 통계국 자료,1996, 통계로 본 일본의 고령자, <http://www.stat.go.jp/data/topics/topi181.htm>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 장에서는 여성
의 육아 및 취업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선행연
구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의 도출

1. 선행연구

우리나라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급격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
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들의 경
제활동 참가율은 OECD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을
분석되었다(Kim, *et. al.*, 2007: 150). 2000년 이후 한
국의 여성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이를
위한 합리적 계산에 있어서 여성취업이 핵심적이다
(Lee & Lee, 2011: 7). 여성의 결혼 및 취업, 육아에 관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어 왔으나 여성취업자의 대다수가 비정
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 없
는 재취업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Yoo,
2004: 242).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노동시
장에 참여한 여성일수록 상위 수준의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in, 2008:
251).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과제로서는 모성보호와 탁
아시설 및 급식제도의 개선이 제시된 바 있다(Kim,
1995: 16). 여성이 육아로 인하여 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모성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
되었다(Kang, 1995: 193). 이와 함께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임금대
체의 수준이 낮아서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완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Lee, 2006: 93). 양육
수당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수당이라는 것이 정
말 아동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밝혔다(Moon, 2011: 186). 이외에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있다(Han, 2009: 328). 이와
같은 훌륭한 선행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
출산·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우리와 비교적 유사한 제
도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다가올 상황
과 정책적인 시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일본여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들을 바
탕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고령화의 진행과 남녀 공동 참가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관, 결혼상황, 취업 및 육
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2) 이에 따라 응답대상자의 상황이 그들의 출산율과
향후의 고령화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저출
산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
아 국가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검증
한다.

(3) 이를 위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여
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4) 본 연구의 특징은 이념과 제도의 국제 비교 조사
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분석하여 한국 등 동아
시아 지역에도 이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탐색적인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를 통한 정밀한 계량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함을 밝
힌다. 이러한 분석을 차후의 연구과제로 한 것은 향후
일본여성에 대한 필드워크를 통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서 보다 한-일간의 차이를 도출함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6/index.board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과 저출산 및 여성의 취업상황과 아동수당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일본 조사기관의 협력을 얻어 일반 여성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실상을 조사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2>와 같다.

2. 연구도구

이 조사연구 결과는 I. 결혼 상태, II. 결혼활동 III. 취업 상황, IV 육아·아동수당의 상황에 대한 5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서의 조사 대상은 일본 전국의 20-39 세의 여성이었다. 특히 일본의 전국적인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ge

age	answer count	ratio(%)
1,under 12 years old	0	0.0
2,12~19 years old	0	0.0
3,20~24 years old	161	15.5
4,25~29 years old	284	27.4
5,30~34 years old	284	27.4
6,35~39 years old	309	29.8
7,40~44 years old	0	0.0
8,45~49 years old	0	0.0
9,50~54 years old	0	0.0
10,55~59 years old	0	0.0
11,60 years old or more	0	0.0
total	1038	100.0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Regional distribution

Distribution	answer count	ratio(%)
1,woman/20-29years/Hokkaido region	19	1.8
2,woman/30-39years/Hokkaido region	25	2.4
3,woman/20-29years/Tohoku region	30	2.9
4,woman/30-39years/Tohoku region	39	3.8
5,woman/20-29years/Kanto region	156	15.0
6,woman/30-39years/Kanto region	210	20.2
7,woman/20-29years/Chubu region	76	7.3
8,woman/30-39years/Chubu region	106	10.2
9,woman/20-29years/Kinki region	75	7.2
10,woman/30-39years/Kinki region	99	9.5
11,woman/20-29years/Chugoku region	24	2.3
12,woman/30-39years/Chugoku region	33	3.2
13,woman/20-29years/Shikoku region	13	1.3
14,woman/30-39years/Shikoku region	17	1.6
15,woman/20-29years/Kyushu region	52	5.0
16,woman/30-39years/Kyushu region	64	6.2
total	1038	100.0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Education

	himself	Spouse
1,junior high School	1.0	1.6
2,high school	22.5	24.6
3,vocational school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6.1	15.4
4,colleges	15.8	6.3
5,university * graduate school	44.6	52.1
total	1038	570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Job

job	answer count	ratio(%)
1.civil servant	13	1,3
2.executive · manager	2	0,2
3.employee(office job)	177	17,1
4.employee(technical work)	34	3,3
5.employee(etc.)	84	8,1
6.self-employment	23	2,2
7.freelancer	9	0,9
8.housewife	338	32,6
9.part-time job	209	20,1
10.student	73	7,0
11.etc.	37	3,6
12.unemployed	39	3,8
total	1038	100,0

인구분포에 맞춰서 조사대상자의 지역을 매칭하였기 때문에 일본 여성의 현실이 잘 반영되었다고 본다. 본 조사는 2013년 상반기에 총 32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1,038 명이다.

IV. 연구결과

1. 결혼과 만혼화

먼저 결혼연령과 관련하여 미혼여성을 대상으로는 결혼희망연령을,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미혼시의 희망 결혼연령을 질문하였으며, 결혼예정이 없거나 없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0으로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25세에서 29세까지를 결혼희망연령으로 선택한 여성이 48.2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전반과 20대 전반이 각각 17.2퍼센트와 16.1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도 20대 후반이 51.3퍼센트로 나타나 결혼희망연령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미혼여성에 대해서는 미혼의 이유에 대

해서 2개까지의 중복답변을 받은 결과, 상대가 없다는 답변이 55.2퍼센트로 그다지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22.7퍼센트의 응답과 여유가 없어서라는 22.1퍼센트의 응답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이유였다. 따라서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여 질문한 결혼상대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미혼의 경우)와 중요시한 요소(기혼의 경우)를 질문한 결과는 <Table5>와 같다.

그 결과 성격과 가치관, 애정을 중요시한다는 답변이 많았던 반면, 연령이나 직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여성들은 객관적인 조건 보다는 주관적인 관계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일본의 평균초혼연령은 남성이 30.4세, 여성이 28.6세이라는 조사결과를 알리준 후 일반적으로 만혼화의 진행과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방해요소를 질문한 결과(3가지까지 선택가능)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독신이 자유로우니까(57.3퍼센트)이외의

Table 5. The important factors of marriage partners

	important	a little important	less important	not important
1.personality	88,3	11,4	0,1	0,2
2.values	69,1	29,3	1,4	0,3
3.face	10,2	57,7	28,3	3,8
4.economic power	33,9	54,1	11,0	1,1
5.job	16,0	48,1	31,2	4,7
6.elder	12,0	21,5	39,0	27,6
7.younger	4,2	8,7	48,2	38,9
8.affection	65,7	31,2	2,6	0,5
9.health	46,2	47,0	5,7	1,2
10.family	31,8	52,8	13,8	1,6

Table 6. The cause of late marriage

	single's freedom	do not care much	because of work	economic power of women	housework · child care	too choosy	little meeting chance	part from parents	change their family name	etc	do not know
ratio	57.3	38.5	14.2	49.5	37.6	24.2	9.9	15.4	2.4	8.4	1.9
total	1,038										

응답들 중 여성의 경제력(49.5퍼센)이나 가사, 육아의 부담(37.6퍼센트)이 크게 나타나 막상 결혼을 하려할 때에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여력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여성의 취업상황 등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여성의 취업상황

현재 조사대상의 취업 상황은 <Table7>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취업하고 있는 곳의 직원 수이며 이때의 직원 수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지점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삶의 보람이나 사회참가를 위해서라는 응답을 제치고 가장 많

았고, 일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취업희망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한 응답비율(중복응답)이 각각 41.9퍼센트와 7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기혼여성들은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타아가 해결되거나 아이가 자란 시점에서 생활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육아상황

조사대상 중 기혼여성을 상대로 자녀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Table 8,9,10>과 같다.

조사대상인 기혼 및 미혼 여성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한 명 혹은 두 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의 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유사했다. 성별에 있어

Table 7.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looking for a job)	unemployed	student	regular staff (~4)	regular staff (5~99)	regular staff (100~499)	regular staff (500~)	regular staff (public office)
ratio	3.9	30.8	6.8	1.3	9.0	7.4	8.7	1.5
part-timer(no child)	part-timer (perinatal same work)	part-timer (perinatal different work)	part-timer (before marriage unemployed)	self-employment · family business	etc			
14.9	1.1	7.9	1.0	3.2	2.7			

Table 8.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children	ratio
0	0.5
1	44.2
2	44.2
3	9.2
4	1.9
total sample	412

Table 9. Child's gender

	boy	girl
first child	52.9	47.1
second child	52.6	47.4
third child	45.7	54.4

Table 10. The ideal number and sex of children

	boy	girl	anyone	never thought
first child	24,3	35,5	26,7	13,6
second child	25,9	24,4	29,6	20,1
third child	6,0	8,4	24,3	61,4
fourth child	2,0	2,4	12,1	83,4
fifth child or more	1,1	0,9	10,8	87,3

서는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자연출산비율과 유사하게 남아의 출산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셋째 아이부터는 여자아이의 출산비율이 높아 일본의 경우에는 여아선호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여성들은 이미 부모를 부양하고 집안을 책임진다는 의미의 아들 선호사상 특히 장자 선호사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Table 11>에서 노후에 자신이 개호가 필요해진 경우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호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인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육아휴직의 사용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12>와 같았다.

그 결과, 많은 일본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인 기혼여성들의 가사협력의 경우, 식사준비나 설거지, 청소, 세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협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힘을 쓰는 일이나 장보기, 아이 돌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배우자들의 귀가시간이 평균적으로 오후 8시 이후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주말의 가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4. 아동수당

먼저 기혼 미혼 여성 모두에게 저출산의 대책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육

Table 11. People who want to entrust the care

	ratio
1.spouse	38,6
2.son	12,2
3.daughter	26,5
4.daughter-in-law or son-in-law	1,0
5.want to enter a nursing facility	48,5
6.want to use home care services	22,8
7.etc	1,4
8.do not want anyone getting care	11,7
total	1,038

Table 12. The usage situation of parental leave

	ratio
1.already returning to work	6,8
2.currently on parental leave	8,8
3.expected future use	1,0
4.although there are parental leave schemes in the workplace, it is not being used	8,8
5.due to the lack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he workplace, I want to use it but can not use	9,0
6.although there are parental leave schemes in the workplace, I will not use	7,1
7.do not know whether there are parental leave scheme at my work, I'm not currently using it	13,4
8.there is no 0 to 6 years old child/not applicable	45,1
total	410

아수당 등의 경제면이라는 응답이 47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30.3퍼센트로 그 다음을 이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육아 지원 즉 일본의 육아수당인 아동수당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질문한 결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57.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 응답으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0.9퍼센트로 다음 순위인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인 9.7퍼센트로 만족이라고 답한 7.4퍼센트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1.8퍼센트의 여성보다 많았다. 따라서 만약 아동수당이 현재의 2배로 된다면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였더니 긍정적인 응답이 39.2퍼센트로 부정적인 응답인 36.3퍼센트보다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육아를 하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들은 아동수당 금액이 얼마면 아이를 낳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100000엔이라고 답한 5.8퍼센트와 50000엔이라고 답한 7.2퍼센트, 30000엔이라는 6.5퍼센트를 제치고, 아동수당이 인상되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77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경우, 특히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육아시설 및 남녀가 사분담 등 다른 원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부담이 증대하는 한편, 일본 경제의 생산력을 지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과 함께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면서 자본 축적(국내 저축)을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결혼연령도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본 조사에서 일본여성들은 주관적으로는 자신과 정신적으로 맞는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는 것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결혼자체가 부담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결혼을 해도 보육시설의 미비와 육아휴직 및 배우자의 가사활동에 대한 비협조로 출산을 꺼리거나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여성들은 자신들의 노후부양을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경력의 단절요인으로 육아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이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나 보육시설 및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부족이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인 요인보다 더욱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보다는 사회보장이나 육아환경이 더 정비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의 전례를 보면 결혼과 육아의 문제를 비단 육아수당 등의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님을 미리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출산·노동력 부족·개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일과 육아·개호의 조화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남녀 공동 참가가 가능한 사회의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현저히 낮은 남녀 공동 참가에 따른 많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항상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시야에서 기초 연구 및 전략적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며 국제 정보 교류와 연구 성과의 사회 보급을 할 세계의 고령화와 남녀 공동 참가 연구가 중요하다. 향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남녀 공동 참가 정책에 의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동아시아, 특히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도입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일본여성들의 결혼관 및 육

4) 일본정부는 2011년 8월 4일 자녀 수당을 폐지하고 2012년 4월부터 아동 수당에 소득 제한을 세전 연봉 960만 엔으로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지급액은 일률 1만 3000 엔이었던 수당이 3세 미만 1만 5000 엔, 3세 ~ 중학생 1만 엔, 셋째 아이 이후(3 ~ 12세)는 월 1만 5000 엔으로 되었다.

아관, 그리고 취업관을 실제로 조사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한 정량분석이 부족한 것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과제로서 일본 여성 및 한국 여성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정량적인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알림 글

이 논문은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2014-23, (경기개발연구원)의 일부를 수정 및 재구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References

- Han, Young Suk. 2009. A Study of the Birth Encouragement Policy of Unmarried Adult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7: 315-331.
- Yoo, Ock Ran. 2004.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Position of Women's Labor. *The Journal of Asian Women*. 43(1): 237-267.
- Kim, Joo Hee. 1995. Women's Employment Increase and the Equal Employment Act Application.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6(1): 1-17.
- Moon, Sun Wha. 2011. A Study on the National Responsible System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ed on Child Allowance System and Gratuitous Nurture.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9: 167-189.
- Kang, Se Young. 1995.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nd State Policies for Woman's Employ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 177-195.
- Lee, Jin Sook. 2006.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93-118.
- Lee, Sung Yong and Jung Wan Lee. 2011.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ouple on the Induced Abortio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1-25.
- Min, Hyun Joo. 2008. Who Gets a Good Job?: An Analysis on the Entry Process into Good Jobs and Bad Jobs in the Korean Women's Labor Market. *Economy and Society*. 6: 223-255.
- Lee, Jae Wan, and Young Sun Choi. 2005. A Study of Child Allowanc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2: 161-180.
- Cho, Jung Shin, and Sung Won Hwang. 2004. Implications of Infant Nursing System, Infant Caregiver Training and Nursing Programs in France for Korean Nursing Policy.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6: 45-7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세영. 1995. 노동시장의 성불평등현상과 여성취업지원정책. *사회과학논총*. 14: 177-195.
- 김정환, 김동배, 문무기, 이인재. 2007. 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김주희. 1995. 고용평등 정착과 여성취업 확대. *여성학연구*. 6(1): 1-17.
- 문선화. 2011. 국가책임제 보육에 관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67-189.
- 민현주. 2008.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경제와사회*. 78: 223-255.
- 유옥란. 2004.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아시아여성연구*. 43(1): 237-267.
- 이성용, 이정환. 2011.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1-25.
- 이재완, 최영선.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161-180.
- 이진숙. 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8(4): 93-118.
- 조정신, 황성원. 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계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6: 45-72.
- 한영숙. 2009. 가임 연령 미혼 남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 차이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57: 315-331.
- The World Economic Forum. 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http://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13>

Received: Jun. 6, 2016 / Revised: Jun. 10, 2016 / Accepted: Jun. 20, 2016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과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와 제도문화면과 저출산 고령화 양태가 유사하면서도 더욱 고령화되어 있는 일본전국의 20대 및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상황, 취업상황, 육아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에게 도래될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일본여성들은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서 자신과 맞는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고 하였으며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면을 그 요소로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결혼여부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면이 제약요인으로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나 보육시설 및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부족이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인 요인보다 저출산에 관한 더욱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저출산, 일본여성, 결혼, 취업, 육아, 아동수당

Profiles **Yoonsoek Lee** : He received his Ph.D.(1s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Ph.D.(2nd) from Keio University, Japan.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eimyung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4 and Guest Associate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at Keio University since 2015.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nd financial administration(yoonslee@paran.com).